

2019년 '이야기극장 톡톡' 안전극장 A작품세트

[19. 02. 28 기준]

	장르 / 제목	작품 주제 / 내용
A 세트 땅이의 안전일기	A1  [재난] 땅이 – 기온에 따라 조심해요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른 안전한 행동수칙에 대해 알려준다.] - 땅이와 늘이는 호호박사님의 어린이계절체험관에 놀러간다. 그곳에서 땅이와 늘이는 계절에 따른 안전 교육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여름 안전수칙 테스트와 겨울 안전수칙 테스트에 모두 통과하게 된다.
	A2  [교통] 땅이 - 신호에 따라 조심해요	[교통안전 표지판과 횡단보도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주며 교통·보행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땅이는 호호박사님의 교통안전 연구소에 놀러가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 배운다. 교통안전에 대해 배우지 않은 늘이는 횡단보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나고 만다. 마음이 삐딱한 삐딱박사는 신호등이 없으면 빨리 다닐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신호등을 고장 내지만, 오히려 혼잡해지고 만다. 이 사실은 안 호호박사님은 신호등을 고쳐 도로를 질서 있게 되돌리고, 땅이에게 횡단보도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준다.
	A3  [유괴] 땅이 – 낯선 사람을 조심해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거나 집으로 찾아왔을 때의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도록 한다.] - 착한 어린이들을 데려가 자신의 부하로 만들고 싶은 삐딱박사는 땅이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한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잘 받은 땅이는 삐딱박사를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 삐딱박사는 땅이의 집까지 찾아가 다양한 작전으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경찰에게 잡혀가고 만다.
	A4  [약물오남용] 땅이 – 약 먹을 때 조심해요	[약의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주며, 약을 잘못 먹거나 오남용 했을 때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 마을 뒷산으로 캠핑을 간 땅이와 늘이는 호호박사님이 숨겨 놓으신 구급약통을 발견하게 된다. 약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 늘이는 약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 결국 배탈이 난 늘이는 병원에 가게 되고, 호호박사님은 친구들에게 약의 올바른 복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준다.
	A5  [성교육] 땅이 – 소중한 우리 몸 조심해요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그에 따른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며 우리 몸의 소중함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대해 몰랐던 땅이는 호호박사님을 찾아가,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명칭,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 듣고 우리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심심한 삐딱박사는 코미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고 장난을 치려 하지만,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으로 코미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A6  [소방] 땅이 – 불 조심해요	[다양한 화재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불의 위험성을 깨닫게 한다.] - 오늘은 땅이의 생일. 호호박사님의 집으로 놀러 간 땅이는 케이크를 보고 혼자 성냥불을 켜본다. 처음에 작고 귀여웠던 '불이야'는 땅이의 실수로 땅이의 옷에 불어 점점 커지고 만다. 땅이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었던 늘이는 혼자 가스불을 켜고 요리를 하다 무서운 '불이야'에게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가게 된다. 결국 땅이와 늘이, 호호박사님은 병원에서 생일파티를 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항상 불을 조심하기로 한다.

* 위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